# 유진룡 "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주도…조직적 범죄"

#### 특검 출석 작심 직격탄

유진룡(61)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기춘(78)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격 탄을 날렸다. 김 전 실장을 "김기춘 씨"로 직함 없이 언급하며 불편한 관계와 그로 인한 앙금을 여과없이 드러냈다. 23일 박 영수 특별검사팀에 나와 취재진에게 김 전 실장을 '블랙리스트' 주도 세력으로 지목 하면서다.

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오후 출석한 유 전 장관은 대치동 특 검 빌딩 3층 주차장에서 20여 분간 가진 기 자회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을 주로 '김기 춘씨'로 지칭했다.

유 전 장관은 "김기춘 씨의 구속으로 우 리나라가 다시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로 돌아갈 것", "블랙리스트 없다고 하는 사 람은 우리나라에 김기춘 씨 한 명뿐", "블 랙리스트는 누가 만들었느냐 (…) 김기춘 씨가 주도한 것" 등의 발언을 했다.

또 유 전 장관은 대체로 '전(前) 실장, 실 장' 등 직함 없이 김 전 실장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. 유 전 장관은 장관직을 수 행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·관리 등으로 김 전 실장과 부딪히면서 감정이 좋지 않 았던 것으로 전해진다.

유 전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도 "김기춘 실장과 제가 블랙리스트 등등으로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부딪혔다"고 언급했다.

그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김 전 실장에 대 한 노골적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. CBS와 인터뷰에서 유 전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

### 직함 없이 언급 앙금 드러내 "불랙리스트로 계속 부딪혀" "문체부 실무직원들 면책을"

택됐으나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"제 가 좀 인격이 여물지 못해서 혹시 나갔다가 김기춘 실장을 보면 따귀나 뒤통수를 때리 는 사고를 일으킬수 있겠다는 걱정 때문에 청문회 출연을 자제했다"고 말했다.

반면 김 전 실장 등 '윗선'의 지시를 받 아 어쩔 수 없이 블랙리스트 작성·관리에 연루된 문체부의 실무 직원들에 대해서 유 전 장관은 "철저한 면책이 필요하다" 며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

유 전 장관은 "(양심에 반하는) 윗선의 지시에 따른 실무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일"이라며 "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았 는데도 자료를 갖고 있다가 제출한 것이 특검의 수사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

정통 문화담당 엘리트 관료 출신답게 후 배들을 챙기면서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선책 도 제시했다. 유전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킬 수 있 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

그는 "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을 어겨 가 며 '영혼 없는 공무원'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,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" 고 강조했다./박지경기자 jkpark@·연합뉴스



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(가운데)가 23일 오후 나주시 광주·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해 조환익 한전사장(오른쪽)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.



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오후 목포 동부시장에서 한 상인이 건넨 떡을 먹고 있다.

# 文 "다시 한번 손 잡아달라" 安 "대선은 과거 청산, 미래 대비"

#### 문재인 · 안철수 이틀째 광주 · 전남 민심 행보

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 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이틀째 광주·전 남에서 민심 행보를 이어갔다.

문 전 대표는 23일 광주와 나주 혁신도 시를 오가며 호남에 대한 적극 구애를 펼 쳤고, 안 전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과 목 포, 신안, 화순, 나주 등을 촘촘하게 훑으 며 지지율 반전에 주력했다.

◇광주, 나주 오가며 민심 구애=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염주체육관 국 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에 참석해 "두 번의 실패는 없다"며 "호남 은 자식 잘되라고 회초리를 든 민주당의 어머니이며 다시 한 번 문재인의 손을 잡 아달라"고 재차 호남민심에 구애했다.

그러면서 "이번에 호남이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아주신다면 저는 절대로 호남의 손을 놓지 않겠다"며 "그 힘으로 대한민 국을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정상적 인 나라로 만들겠다"고 강조했다.

호남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"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을 통해 명

실상부한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고, 미래 형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은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"면서 "전 남은 서남해안 대단위 풍력발전소 단지 조성 등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 너지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"고 밝혔다.

하지만, 이는 문 전 대표가 지난 20일 부산을 찾아 4조~5조원 규모의 한국선 박종합금융회사 설립, 해운사 본사 부산 이전 등을 밝힌 것과 달리 구체성이 떨어 진다는 지적이다.

문 전 대표는 이어 참여정부의 성과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찾아 "이명박· 박근혜 정부 시절 지지부진해진 혁신도 시를 민주당이 마무리하겠다"고 지지를 호소했다.

문 전 대표는 한전 본사를 방문한 자리 에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주문했다.

이후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주 민, 입주기업 노조, 중소기업 대표를 만난 문전 대표는 "혁신도시 시즌 2를 열기 위해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달라"고 호소했다.

문 전 대표는 일정 중 짬을 내 남평 문 씨 시조 등을 모신 전남 나주시 남평읍 '장연서원'을 찾아 종친들 앞에서 대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.

◇전남 서부권 순회로 지지층 다지기 =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전남 서부권 바닥을 훑으며 지지층 다지기에 노력했다.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 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기 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"불출마 가 능성이 높아졌다"고 말했다. 그러면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'옛날 사람'이라고 견제했다.

안 전 대표는 "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이고 이길 자신이 있다"며 양자대결 구도를 부각하려 공들 였다. 그는 "정권교체의 두 가지 의미는 과거청산, 미래 대비"라며 "새누리당이 든, 바른정당이든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세력은 대통령을 꿈꿀 자격이 없어 둘 다 (과거청산, 미래 대비) 할 수 없다"고 비 판했다. 이처럼 여권과 반 전 사무총장을 차례로 배제한 뒤 이틀째 야권 심장부 광 주·전남에서 '외나무다리' 민심 경쟁 중

인 문 전 대표에게 집중포화를 날렸다.

안 전 대표는 "문 전 대표는 과거청산 에서는 재벌개혁 의지가 의심스럽고 미 래를 대비하기에는 옛날 사람이다"고 평 가했다.

그는 "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대선 전 부터 정보화 산업을 주창했는데 당시에 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, 당선 직후 박차를 가해 실제 산업을 일으켰다"며 "결과적으로 휴대전화를 비롯해 20년 먹 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, 김대중 전 대통 령 뒤를 이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다음 2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"고 약속했다.

기자간담회에 이어 안 전 대표는 오후 에는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악 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.

이어 신안군청을 방문해 고길호 군수 와 환담을 한 뒤 무안으로 이동해 종합사 회복지관을 찾아 지역 민원을 청취했다.

이어 안 전 대표는 화순 녹십자 백신생 산 공장을 둘러본 뒤 경로당을 찾아 어르 신들에게 설 인사를 하는 등 호남 민심 잡 기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###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과…"특검 수사 적극 협조"

"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"

'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' 작성 및 운영 관여로 전·현직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구 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국민 사과문을

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. 문체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한 유동훈 제2차관, 실국장들은 23일 오후 정 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 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"고 밝혔다.

이어 "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히 파악해 진실을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 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"며 "누구 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"고 말했다.

또 "문체부 직원들은 특검 수사를 통해

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, 특검 수사 등을 통 해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마 땅히 감내하겠다"고 덧붙였다.

문체부는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도 다짐했다. 문체부는 "이번 일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문 화예술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 제도와 운영절차 를 과감히 개선하겠다"고 밝혔다.

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확립방 안을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 '문화 옴부즈맨' 기능을 부여, 부당한 개입 과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받아 직접 점검・ 시정하겠다고 말했다.

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 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이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. /연합뉴스

## 바른정당 초대 당대표 정병국 추대

#### 김재경·홍문표·이혜훈·오세훈 최고위원 선임

바른정당이 23일 중앙당 현판식 및 창 당준비회의에서 정병국(사진) 창당준비 위원장을 초대 당 대표로 추대했다. 또 김 재경·홍문표·이혜훈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 등 4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임했다.

초대 대표로 추대된 정 의원은 5선의 중진이지만 '원조 쇄신파'로 통한다. 지

난해 새누리당 8.9 전당대회에 출마해 합 동연설회까지 참여하며 친박(친박근혜) 계 청산을 포함한 당 개혁을 외쳤지만, 비 박(비박근혜)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주 호영 의원에게 패배함으로써 완주하지는

못했다. 앞서 제17대 국회이던 지난 2004년 한



'새정치수요모 삼두마차로서 이른바 '남원정'(남 경필·원희룡·정병 국) 트리오로 불리 며 활동했던 게 쇄신파의 시작이다.

나라당(새누리당의

전신) 소장파 중심

정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'신동호의 시선집중'에서 당의 진로에 대해 "어느 한 인물을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지 않을 것"이라면서 "보수의 적통으로서 바른정

당이 자리매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"

정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끄는 상도동계 막내 출신으로서 집권에 성공한 뒤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냈으며, 제16 대 국회에서 원내로 입성한 뒤 지난해 제 20대 국회까지 내리 5선에 성공했다.

부인 이상희(54)씨와 1남 1녀.

▲경기 양평(59) ▲서라벌고·성균관대 사회학과 ▲제16~20대 국회의원 ▲새 누리당 사무총장 ▲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m 하나 Pack

www. **HanaTour**.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

HTD 하나투어

